

분과학문간의 '가로지르기'로 인문학의 위기 넘는다

영상문화학회 · 문화과학 등 학문간의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지향

인문학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지식인 집단들이
결집하고 있다. 영상문화학회 · 문화과학학회 ·
문화과학 등의 학제간 연구집단들은 인문학의 위기를
불러온 폐쇄적 학문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학제간의 통합적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한다. 특히
삶의 현장과 밀착된 담론개발과 비판적 대중과의 소통을 추구한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
건조한 참호가 있다. 아군의 참호 사이에는 연락
이 두절된 상태. 이 참호 안에 거주하는 병사들
은 지금까지 안전을 보장받으며 태평성대를 구
가해왔다. 멀리서 울려 퍼지는 위협의 호각소리
를 흘려들어도 좋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참호에
일대 위기가 닥쳐왔다. 적군이 바로 위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던 것이다.

병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길은 두가지다.
무기력하게 자멸하거나 원군을 요청하면서 용감
히 적과 맞서 싸우는 것이다. 인문학의 위기는
연락이 끊긴 참호 속의 병사들처럼 자기성찰이
실종됐거나 시장가치와 경쟁논리라는 적을 감지
하지 못했다는 데 기인한다. 이제 깨어 있던 지
식인들이 서서히 대오를 형성해가고 있다. 자멸
의 길을 거부하고 학문간의 연대전략을 모색하
기 시작한 것이다.

학제간 통합적 커뮤니케이션의 실현

인문학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지식인 집단들
의 전략은 하나로 모아진다. 학문분과 사이에 놓
인 칸막이를 허물고 지식을 둘러싼 공적 대화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영상문화학회 ·
문화과학학회 · 문화과학 · 한국기호학회 · 한
국동양예술학회 등의 학제간 연구집단들은 이론

적 실천과 통합적 커뮤니케이션의 실현을 목표
로 새로운 진영을 꾸려가고 있다.

'영상문화와 이미지 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담
론의 구성'을 목표로 지난해 5월 창립한 '영상문
화학회'(공동위원장 도정일 · 성완경)는 인문학
의 깨어 있는 비판정신과 뉴미디어의 접점을 모
색한다. 특히 인문학의 총체성을 담아내는 형식
으로서 영상에 주목하고 여러 영상문화에 내재
하는 역동성의 담구를 목표로 한다.

박광성 총무이사(생각의나무 대표)는 "분과
학문의 개별화 · 전문화 추세에 따라 인문학의
본령인 통합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영상문화학
회는 가짜 욕망을 생산하는 시장원리와 공동체
의 관심과 유리된 학문의 이기주의를 타파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학회에는 문학 · 연극영화 · 신문방송 · 미
술 · 사진 · 건축 · 만화 · 애니메이션 분야의 전
문가 약 2백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김성도(고려
대 언어학), 김민수(전 서울대 미대), 김동운(건
국대 불문학), 박신의(미술평론), 유지나(동국대
연극영화학), 최혜실(과기대 국문학), 김정란(상
지대 불문학), 김상환(서울대 철학), 박성수(해
양대 철학), 정병규(정병규 복디자인) 등이 그
면면들이다.

현재까지 '애니메이션과 3D 동영상' '이미지

의 공공적 차원과 예술검열의 문제' 등을 주제
로 한 학술 세미나와 '이상의 시와 시각예술'
'사진 이미지와 의미작용의 경계들' 등의 워크
숍, 질 들뢰즈의 《영화》 독회 콜로키움 등을 진
행해왔다. 또한 영상이미지를 분석한 논문을 모
은 《이미지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생각의나무)
를 펴내기도 했다.

문학과 영상매체의 만남

영상문화학회는 사회 · 문화적 현안에 대해 적극
적 대응과 실천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존 학회
와 구별된다. 영화 <거짓말>의 상영금지과 신학
철의 <모내기>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관습 · 제도의 검열'을 주제로
현안을 점검하고, 김민수 전 서울대 교수의 복직
을 위한 교수 서명운동에도 적극 발벗고 나선 것
도 이런 지향성을 보여준다.

올해 상반기에 학술지 《영상문화 연구 · 이미
지》(가칭)를 창간할 예정이고 비평이론학회(회
장 김우창)와 공동 심포지엄도 추진중이다. '문
화개혁시민연대'에 적극 참여해 비판적 · 반엘
리티즘적인 이론과 실천을 제도화하는 문제도
고민한다. 영상매체의 비판적 수용과 다매체간
의 종합적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영상문화학
회는 범사회적 연대를 구상한다는 점에서 지식
인 운동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초 결성된 '문화과학학회'(회장 김
성곤 서울대 영문과 교수)도 영상매체의 위력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영상문화학회와 맥을 같이
한다. 90년대 들어 영상매체에 익숙한 세대가 대
학에 진학함에 따라 활자매체 중심의 관습적인
문학교육이 이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 문학과 영상의 학제적 연구와 교
육을 모색한다.

김성곤 회장은 "대학교육에서 분과학문이 홀
로 존재하는 시대는 지났다. 퓨전문화가 세계적
인 추세다. 이제는 문화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해야 할 때"라며 "문화과학학회는 문자매
체와 영상매체의 창조적 종합을 지향한다"고 전



영상문화와 이미지 문명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개발한다는 취지로 모인 '영상문화학회'의 회원들.

한다. 매체의 패러다임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지만 인문학의 체제비판적 기능도 견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학회의 관심은 크게 세가지로 모아진다. 교육현장에서 영상매체를 어떻게 활용하며 문학과 영상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영상텍스트를 어떻게 문화텍스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그것. 이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영화 읽기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한 워크숍을 개최, 영화 텍스트의 문화적 해석을 위한 문이론과 영화이론의 접점을 찾는다.

문화전위 집단의 변혁적 전선운동

영상문화학회와 문학과영상학회가 '단일의제' 중심이라면 91년에 결성된 '문화과학' 팀은 신좌파적 문화전위 집단의 변혁적 '전선운동체'다. 이들은 인문학의 위기를 두가지 측면에서 파악한다. 90년대 이후 자본주의적 지식생산 방식이 강요되면서 변혁운동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고, 인문·사회과학적 지식의 현실적합성이 상실됐다는 것이다.

"인문학의 위기는 분과학문 제도에서 발생한다. 복합적인 사회모순을 분석·변혁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통합적 학문을 지향해야 하는데, 그것을 가장 전형적으로 추구한 학자가 바로 마르크스였다. 문화과학은 마르크스적 문제의식을 견지하면서 문화적 대안제시에 충실할 것이다." 문화과학을 주도하는 강내희 교수(중앙대 영문과)의 설명이다.

문화과학을 특징짓는 것은 토픽중심적 사고, 언어·육망·육체·사이버 등 문제설정 자체를 새롭게 했다. 현재 20호까지 발간된 《문화과학》

이 처음에는 의제발굴에 전념했다면 13호 이후부터는 '문화사회'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새로운 사회건설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문화개혁시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다.

20세기 인문학의 혁명을 물고온 언어학과 기호학의 통합적 가능성을 전략적 지점으로 삼은 학회도 생겨났다. '한국기호학회'(회장 김치수 이화여대 불문과 교수)는 기호학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지난 94년 창립됐다. 롤랑 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물과 현상은 의미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각 분야에서 다양한 기호학 이론을 적용하고 그 의미를 밝혀내는 작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 학회도 분과학문의 발달이 인문학의 발달을 저해한다는 데 동의한다. 김치수 회장은 "결국 기호의 의미와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른 학문과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데 기호학 이론의 효용성이 있다"고 말한다. 기호학은 문학·철학뿐만 아니라 음악·건축·미술·영상·커뮤니케이션 등의 학문과 광범하게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례 발표회, 월례발표회 등의 연구 성과물을 모아 《문화와 기호》《은유와 환유》《언어와 기호》등을 제목으로 한 학회지 《기호학 연구》를 제6집까지 발간했다. 지난해에는 '국제기호학회'에 가입해 국제적 연대의 틀도 마련했다. 기호학회는 앞으로 21세기 인문학의 중요한 화두가 될 생태학적 대안마련에 치중할 예정이다.

인문학의 서구화와 식민성을 극복하고 자생적인 한국학을 모색하는 지식인 집단도 출범했

다. 지난해 10월 창립한 '한국동양예술학회'(회장 송하경 성균관대 유학과 교수)는 동양예술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추구한다. 건축·공예·무용·미술·민속·복식·서예·연극영화·음악·회화 등의 분야를 망라해 약 1백여명이 회원으로 참가했다.

자생적 한국학의 모색

이 학회는 동양예술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동양예술 및 각 부문간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상호간의 교류·제휴·협조 및 융화를 위한 활동을 펼친다. 특히 21세기 전통 패러다임의 모색과 전통미학의 세계성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만년간 학회지 《한국동양예술연구》를 발간하고 고전의 발굴과 영인, 그리고 번역을 통해 전통학문의 토대를 튼실히 갖춘다. 지난달에는 '20세기 한국예술의 회고와 21세기 그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해 전통예술의 미래적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점검했다.

이들 학제간 연구집단들은 인문학의 위기를 도약의 단초로 삼아 출발했다. 학제간의 통합적 연구라는 지향성에 합의했을 뿐 아직까지 분과 학문간의 '가로지르기'를 통한 총체적 대안제시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비판적 대중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엘리트즘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인문학의 위기를 불러온 폐쇄적 학문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삶의 현장과 유리되지 않는 담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박천홍 기자